

# 다시 마주앉은 여야 사안마다 충돌

상임위별 법안·예산심사·여야정 협의체 실무협 첫 회의 세입결손 4조원 갑론을박…일자리 예산·남북협력기금 험로

여야는 정기국회 정상화 첫날인 22일 상임위원회별 법안심사와 마비지 예산심사에 착수했다. 여야가 전날 정상화에 합의하기 전까지 일주일 가량 국회가 멈춰 있었던 터라 법안·예산 심사에 속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곳곳에서 진통이 있었다.

여야가 유치원 3법,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핵심 법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데다,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 여야가 충돌하는 예산 쟁점이 많기 때문이다.

일단 상임위가 이날 정상적으로 가동되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한 법안심사에 속도가 붙었다. 당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국토위원회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들을 상정·심사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개최, 가명정보(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 개념 도입과 이용범위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여야가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일명 '윤창호법' (읍주운전처벌 강화법)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선 쌀 목표가격을 다루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청원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소개한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폐기 및 재협상에 관한 청원' 문제를 다뤘으나 논의 끝에 일본 측의 실행 불가 등을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각당 김태년·함진

규·권은희 정책위의장, 서영교·윤재우·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이행입법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여야정이 합의한 사안들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야 3당은 애초 지난 12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실무협상을 할 예정이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등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하는 바람에 그동안 열리지 못했다. 여야 3당은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실무협의를 23일 오후 3시 다시 이어갈 예정이다.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칼질'이 시작됐다. 여야 의원 16명으로 구성된 예결위 예산소위는 이날 오전 감액 심사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 여야는 첫날부터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4조원 상당의 세입결손이 생기는 부분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야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부기기지세 4%p 인하, 지방소비세 4%p 인상에 따라 세비 2조9000억원이 줄어들고 유류세 한시 인하에 따라 1조 1000억원의 세입이 줄어 총 4조원 상당의 세입결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여당은 충분한 대비책이 있다며 맞섰다.

결국, 안상수 위원장이 오는 23일까지 정부가 대책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며 상황이 종결됐다.

예산소위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소관부처의 예산을 첫 심사대상에 올렸고, 이어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순으로 심사가 이어졌다. 국회의 법안·예산 심사가 본격화하면서 기선제압을 위한 여야 간 기싸움도 펼쳐졌다. 특히 여야는 정기국회 이후 실시하기로 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를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예산안 처리 힘 모읍시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회의에서 각당 원내대표들이 회의장을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원내대표들로 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안상수 예결위 위원장. /연합뉴스

## 여야 '채용세습 국조' 내용·범위 진통 예고

한국당 "강원랜드 제외"…민주 "시기 제한 어렵다"

지난 21일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로 국회가 파행 여섯 만에 가까스로 정상화 됐지만,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의 내용과 범위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계산이 재각각이어서 정기국회 회기 막바지 다시 극심한 여야 대치가 우려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22일 민주당은 우선 한 국당의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제기에 방어막을 쳤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

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이 국회 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이 드러난 것은 없다"며 "야당이 구체적인 증거 없이 국정조사를 무차별적인 정치공세의 장(場)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고 남은 것은 가짜뉴스로 보인다.

또 한국당이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비리에 대해서만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하는 것과 관련, 민주당은 조사하다 보면 시기를 제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즉 한국당 국정감사·영동연 의원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2012~2013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국조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이 2015년 이전에 발생한 일이지만 문제가 된 것은 지난 해라는 점에서 국조에서도 거론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면에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지렛대로 국정조사에서 야당의 전방위 공세 차단에 나서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비례대표에선 얻는 게 없다'고 했다"면서 "민주당이 과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구제를 개편할 의지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래서 "민주당의 속내는 '우리가 집권여당으로 제1당인데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우리 스스로를 가로막느냐'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금 '총선을 하면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크게 오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한국당 일부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중대선거구제는 비례성, 대표성과 상관없는 당리당략에 불과한 제도로 일본에서도 실패했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이해찬, 연동형비례제 입장 밝혀야"

바른미래당 의총…손학규 대표 선거제 개편 촉구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2일 선거제 개혁과 관련, "정부·여당이 현재 위세만 믿고 단순다수제 선거제를 유지하려 하는 것은 의회 중심의 새로운 정치를 열고자 하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제3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했느니 마느니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여기서 진실게임을 하고자 하는 것 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손 대표는 K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대표의 국회의장 공관만찬 당시 발언에 대해 "이 대표가 그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민주당이 소선거구제 선거에서 모든 것을 얻어서,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계파로부터 자유로운 중도·중립후보를 표명하고 있다.

정견 발표에서 원내대표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자신이 한국당 화합과 당 지지를 상승을 견인할 적임자임을 자처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모임에서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의원 10명에게 참석을 요청했지만, 나경원·유기준(이상 4선)·김영우·유재중(이상 3선) 의원만 참석했다.

유기준·유재중 의원은 전류파 원내대표 후보로 분류되며, 나경원·김영우 의원은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주형 일자리·세계수영대회 성공 협력"

민주 광주시당 자치분권정책협의회…市·5개구와 결의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광주시, 5개 자치구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와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2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자치분권정책협의회를 열고 광주시와 5개 자치구 협약과 대통령 국정과제, 민주당 핵심 공약 이행점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자치분권정책협의회는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에 따라 당정협의회가 상설기구화된 것으로 민주당과 시, 5개 구는 앞으로도 3자 협의회를 지속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송갑석 광주시당위

원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5개 구청장, 민주당 소속 광역의원 전원과 기초의원 의장단, 지역위원장 등이 참여 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내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현대자동차 투자로 상징되는 광주형 일자리 협상 타결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협의회 의장인 송갑석 시장위원장은 "당정협의회를 자치분권정책협의회로 상설조직화 해 당과 지방정부, 지방의회 간 협의와 협조를 강화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인 자치분권국가 완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m<sup>2</sup>(276평) 건물:1,477,64m<sup>2</sup>(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m<sup>2</sup>(408평) 건물:1,350.03m<sup>2</sup>(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m<sup>2</sup>(2,317.8평) 건물:6,864,61m<sup>2</sup>(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m<sup>2</sup>(939.1평) 건물:11,543.18m<sup>2</sup>(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m<sup>2</sup>(751.77평) 건물:5,802.89m<sup>2</sup>(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 병 원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m<sup>2</sup>(187.4평) 건물:1,458.86m<sup>2</sup>(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m<sup>2</sup>(155.6평) 건물:2,143.08m<sup>2</sup>(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m<sup>2</sup>(175.57평) 건물:2,889.86m<sup>2</sup>(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 토 지

- ★ [토지]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토지:5,324m<sup>2</sup>(1611평) **매매가:59억6천만**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토지:9,157m<sup>2</sup>(2770평) **매매가:83억1천만**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m<sup>2</sup>(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매매·임대·다량보유,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